



2018 S/S NEW COLLECTION - Joy 조이



2018 신년호 + vol.10  
 웰크론그룹 시보 '웰크론인'

weicron.in

2018 신년호 + vol.10

weicron.in



**먼지 제로, 건강케어 세사리빙 기능성침구**

세사리빙은 극세사 점유율 세계 1위기업 (주)웰크론이 론칭한 기능성침구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인정한 극세사 활용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웰크론 기술연구소 소속 최고의 연구진이 침구 제작의 원료가 되는 원사의 연구 및 개발부터 침구 생산 및 성능테스트까지 전 공정에 참여,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제, 먼지 없는 건강한 이불, 알려지방지 기능성침구 세사리빙을 만나보세요.



본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12 대리점개설문의 02)6240-6570 고객상담실 02)2107-6600 www.sesaliving.com

2018 세사 - 세사리빙 전속모델 이지원





# Contents

## Special Theme

- 04 **Prologue**  
소소한 오늘의 노력이 커다란 미래를 꿈꾸게 하다
- 06 **Special Theme 1**  
눈사람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 08 **Special Theme 2**  
웰크론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 12 **Special Theme 3**  
웰크론그룹의 미래, 우리는 웰크론그룹 신입사원입니다

## W Story

- 14 **Issue 1**  
더 높게 더 눈부시게, 웰크론그룹 제2의 도약을 꿈꾸다
- 16 **Issue 2**  
깨끗한 환경,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약
- 18 **Issue 3**  
폐기물 자원화,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 20 **Issue 4**  
함께여서 특별했던 겨울 밤
- 22 **Issue 5**  
더 큰 도약을 위한 배움과 소통의 장이 펼쳐지다
- 24 **Advice**  
고객 만족, 본질에 다가가기
- 26 **우리팀 최고**  
일곱 색깔 개성으로 이룬 물류 혁신
- 30 **식사를 합시다**  
맛있는 대화, 상사와 직원의 마음을 잇다
- 32 **특별한 하루**  
사랑을 토핑한 피자, 같이 드실래요?
- 36 **행복한 나눔**  
연탄과 함께 희망을 배달하다

## W Life & Culture

- 38 **W R&D**  
리튬 농축·결정설비, 용제회수설비
- 40 **꿀피부 꿀팁**  
달콤함 가득, 꿀 피부 만들기
- 42 **우수매장**  
세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세사리빙 대구 감삼점
- 44 **Trend**  
사물인터넷은 지금 어디?
- 46 **News**
- 50 **W Board**
- 51 **W Campaign**



### Cover story

2017년에 이어 2018년 세사·세사리빙 모델로 선정된 배우 하지원. 산뜻한 짧은 머리에 싱그러운 미소가 세사리빙 2018 S/S 신제품 '어반(Urban)'과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미소처럼 올 한 해 웰크론그룹에도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S N O W B A L L

소소한 오늘의 노력이 커다란 미래를 꿈꾸게 하다

# E F F E C T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이,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시작이 없으면 꿈도 성공도 없습니다.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곧 경험, 경험의 축적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공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웰크론그룹 여러분,  
지금 당신의 꿈은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멈춰있다면, 실패가 두려다면 한 번 더 용기를 가져보세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의 노력이 쌓이고 모여  
거대한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눈사람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역사는 대부분 보잘것없는 차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혁혁한 성장 뒤엔 아주 작은 발걸음, 그리고 지치지 않는 실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사람 효과(Snowball Effect)'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눈덩이를 뭉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만들어진 눈덩이를 키우는 일은 처음보다 수월하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눈사람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입니다.



### 끈기와 인내로 경험을 축적하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위기입니다. 칠혹 같은 어둠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하급수적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비즈니스 전 분야에 걸쳐 IT기술이 접목되며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니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가던 길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멀고 힘든 천리 길도 시작은 첫 번째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악착같은 끈기입니다.

총 공사비 2조 원이 넘는 인천대교 공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개념설계'였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하고 핵심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으로 전체 공사비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입니다. 지난 인천대교 공사에서 우리는 이 개념설계 부분에 있어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술회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념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도, 숙성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빨리 해내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서울공대 26명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기반으로 한 '축적의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건 피하고 눈에 잘 띄는 쉬운 일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세상만사가 그렇습니다. 손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른 성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도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우리에게 '국민게임'이나 다른 없었던 '앵그리 버드(Angry Bird)'도 게임회사 로비오가 숱한 실패 끝에 출시한 52번째 게임입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을 이어주던 작디작은 인맥 사이트일 뿐이었습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역사도 대부분 보잘것없는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

글이 그랬고 애플이 그랬으며, 아마존이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발 한 발 묵묵히 가다 보면 쌓이는 게 '경험'이고 '통찰'입니다. 처음에는 그 '축적'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중에 쉬어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결과는 어느 순간 불현듯 나타납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뭉쳐도 빨리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초기단계를 넘어서면 눈덩이가 커지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눈을 뭉치는 초반부가 어려울 뿐이지 한 번 뭉쳐진 눈덩이는 알아서 굴러가게 마련입니다. 이른바 '눈사람 효과(Snowball Effect)'입니다.

### 두려움 대신 도전하라, 실행력의 중요성

눈사람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첫번째 교훈이 '끈기와 인내'라면 두 번째 교훈은 '실행'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에서도 방점이 찍히는 건 실행입니다. 여기 실행과 관련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며 신에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 정성을 보다 못한 신이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네 뜻은 알겠으니 일단 복권부터 좀 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트를 휘둘러야 안타든 홈런이든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배트만 들고 있다가는 당연

히 삼진 아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행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실행은 그래서, '도전'이고 '열정'입니다. 일단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스타트업 분야에 '피보팅(Pivo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접고 비즈니스의 초점이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사업입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방향이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피보팅입니다. 스타트업의 99%가 피보팅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관건은 실행입니다.

문제가 작금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면 해답은 '기업가정신'입니다.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 기업가정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일 수 있어서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성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기업가정신과 함께 우리가 곱씹어야 할 '눈사람 효과'의 비즈니스 교훈입니다.

#### 글쓴이 안병민 대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헬싱키경제대학원 MBA를 마쳤다. 대흥기획 마케팅전략연구소,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의 마케팅본부를 거쳐 휴넷의 마케팅이사(CMO)로 고객행복 관리에 열정을 쏟았다. 지금은 엘리비즈랩 대표로 경영·마케팅 연구·강의와 자문·집필 활동에 열심이다. 저서로 「마케팅 리스타트」, 「경영일탈-정답은 많다」, 감수서로 「사오미처럼」이 있다.

웰크론그룹의 신규사업을 이끄는 리더 4인의 신년맞이 좌담회

## 웰크론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 참석자

#### 신정재 사장

(웰크론 리빙부문 & 웰크론헬스케어 영업본부 / 웰크론 리빙부문 및 웰크론헬스케어 영업총괄)

#### 이범용 사장

(웰크론한텍 에너지사업부문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개발 사업 담당)

#### 성두용 부사장

(웰크론강원 에너지환경사업본부 /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개발 및 기본 설계 담당)

#### 김봉태 상무

(웰크론 기술연구소 / ICT 스마트 섬유, 의료환경소재 연구개발 총괄)

2017년 웰크론그룹은 창립 25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2018년은 웰크론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서 그 의미가 깊다. 그룹 비전인 '2022 222'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전 계열사 모두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올 한 해 웰크론, 웰크론헬스케어,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의 신규사업을 이끌어 갈 리더 4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숨 가뻐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간의 이슈를 공유하고, 업무 개선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RE-START'를 주제로 새해 비전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사업 부문은 달라도, 그룹 성장과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신사업에 대한 도전정신은 같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 웰크론그룹 창립 25주년, 빛났던 한 해

**이범용** 지난 한 해는 웰크론그룹이 창립 25주년을 맞으며 각 계열사 모두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의미 있는 일들이 꽤 있었지요?

**신정재** 지난해 유해 생리대 사건으로 세상이 많이 시끄러웠죠. 당시 동종업계 전체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까 우려했는데, 우리 웰크론헬스케어 제품인 예지미인은 소비자에게 선택 받았어요. 천연소재와 100% 순면 사용 등 철저히 품질관리를 한 덕이죠. 모든 임직원이 시간으로 소통하고,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판매율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멋진 일이 가능한 지도 확인했죠.

**성두용** 2017년은 그룹 비전인 '2022 222' 실현을 위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웰크론강원에서는 대산과 여주, 안동 등 SRF/MSW 발전플랜트 보일러를 수주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룹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갔다고 봅니다.

**이범용** 웰크론한텍과 웰크론강원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주한 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17년에 294억 원 규모의 대산 SRF 발전플랜트를 공동으로 수주하면서 한 해를 의미 있게 시작했지요. 두 회사의 공동 에너지 사업 첫 작품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올 한 해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봉태** 2017년 웰크론에선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성장하는 성과가 있었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리빙부문 조직을 강화했어요.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IoT를 연계한 스마트 침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인공혈관 제품을 국산화했는데, 이는 단순히 산업용·생활용 섬유에서 나아가 의료·IT 분야로 섬유 사업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2018년도에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 합니다.

**성두용** 계열사별로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그룹 비전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아 기쁩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웰크론강원은 웰크론그룹 신재생발전사업의 Start Project인 제주그린파워 6MW SRF 가스화발전소 공사를 2017년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봉태** 웰크론에서는 인공지능 IoT 코골이 베개 제품을 2017년에 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소리 인식 알고리즘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원인을 파악,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해 제품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용** 사업 면에서 아쉬운 점은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든 동료들이 다른 조직으로 떠나게 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다시 시작**

**이범용** 지난해 실적도 공유했고, 아쉬웠던 기억도 나누었네요. 올해 더 빛나는 웰크론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웰크론한텍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내실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는 동시에, 2018년엔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중소 규모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성두용**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도전 의식이 멋집니다. 웰크론강원도 새로이 도전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보일러 설계·제작·시공 및 시운전을 주력사업으로 했으나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10MW 이하의 소규모 Biomass Power Plant 표준모델을 개발해 발전설비 설계·제작·구매·시공 및 시운전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신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은 이를 준비하는 첫 해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봉태** 웰크론은 산업용 극세사 섬유와 먼지 없는 기능성 침구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소리인식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ICT용 하드웨어와 펌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로 스마트 침구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018년에는 수면 시 인식되는 환경·생체신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수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면전문업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PET용품 사업과 지난해 증설한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신규 부직포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방역 마스크와 필터 완제품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정재** 웰크론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전문회사로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소재를 사용한 노케미컬 위생용품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는 쉐미인 신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저가 브랜드 '9 drops'를 론칭하려 합니다. 브랜드 이원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룹이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한다**

**신정재** 2018년 새해를 맞아 다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봉태** 2022년 매출 5,000억 원 달성이라는 웰크론그룹 목표에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침구와 의료환경 소재가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응용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나아가 스마트 침구 개발을 통해 국내 침구 산업을 한 차원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스마트 침구 제품 개발로 후대에까지 명성을 떨칠 수 있길 꿈꿉니다. 언

젠가는 손주들에게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제품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웃음)

**이범용** 저 또한 회사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원들과 대화하고 격려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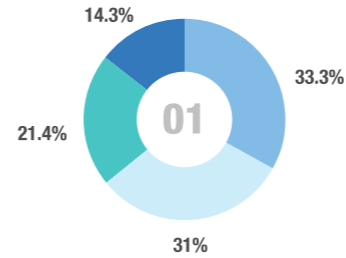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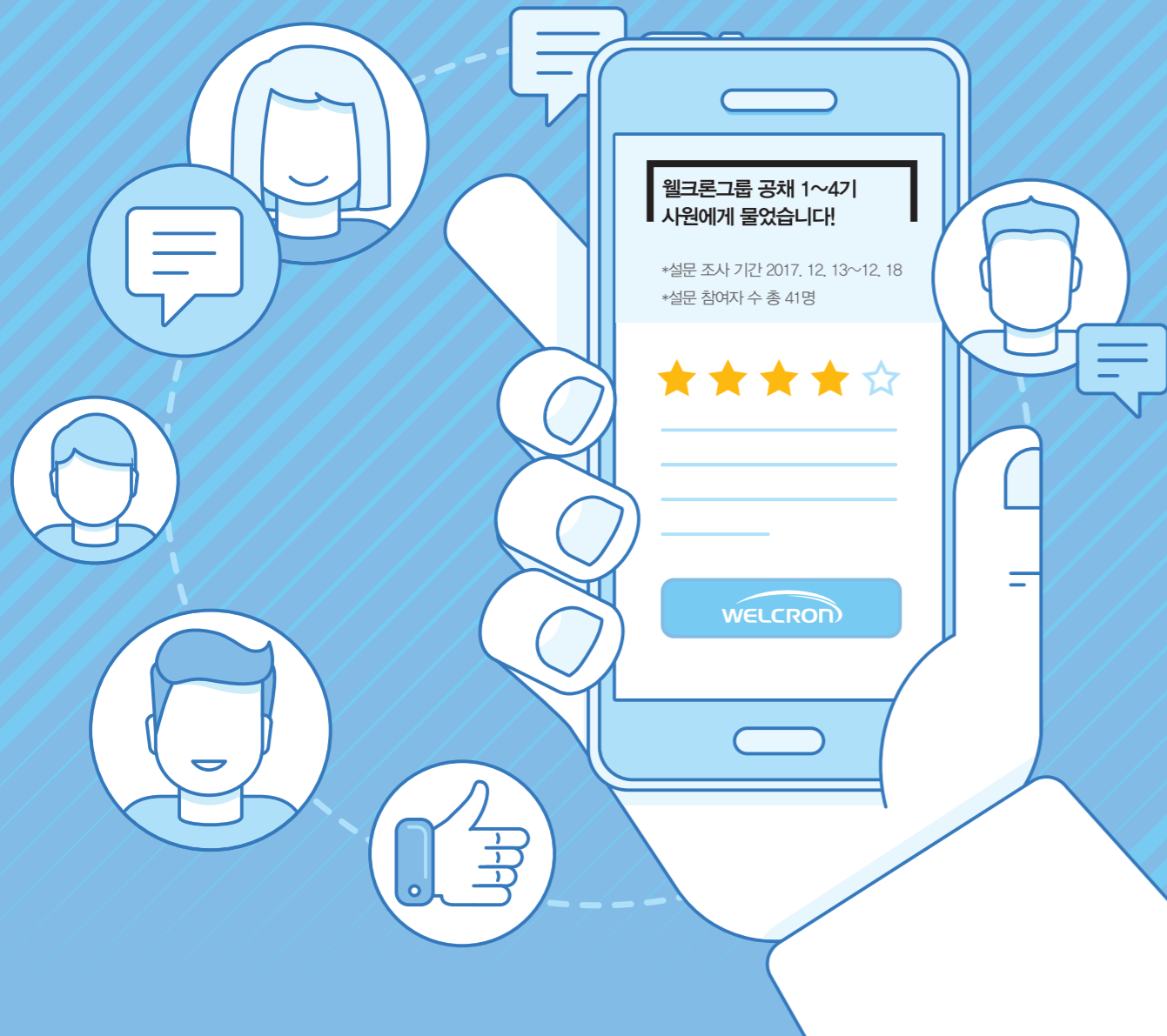
**성두용** 기존에 Biomass/SRF Power Boiler의 핵심기인 화격자를 선진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웰크론강원의 독자 기술로 고유모델의 화격자를 개발하고 웰크론그룹의 SRF 발전사업에 적용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한 뒤, 선진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일에만 매진하느라 건강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철저한 식단관리, 하루 30분 이상 걷기 등을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신정재** 올해는 이영규 회장이 말씀하신 눈사람 이론에서 중요한 단초가 되는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신바람 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좋은 성과는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고 하죠. 저희 웰크론헬스케어에서는 개인 역량을 120% 끌어올리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복지 등에 신경 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 분야에 책임과 임무를 다하면 반드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회사는 위기에 강하다. 지난 25년간 웰크론그룹은 수많은 변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다. 성장일변도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지만 강력하고 내실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만들어 온 결과다. 숨 가뻐던 25년 역사를 뒤로 하고, 2018년 새로운 시작을 맞은 웰크론그룹.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인재와 기술 융·복합을 바탕으로, 인류건강과 지구환경 보전에 공헌한다'는 기업 미션을 실천하기 위한 힘찬 행보는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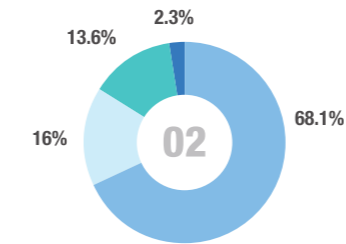
## 웰크론그룹의 미래, 우리는 웰크론그룹 신입사원입니다

당찬 포부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웰크론그룹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  
회사 생활에 적응하라, 업무 파악하라 누구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은 사회생활에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작은 칭찬 한 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를 느꼈을 신입사원들.  
오늘의 노력을 발판삼아 내일의 희망을 그려나가고 있는 이들의 2017년은 어땠는지,  
또 2018년 회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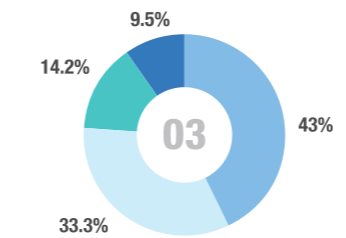
2017년을 마무리하며, 웰크론그룹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 Great! 꽤 만족함
- Good! 만족함
- Not bad! 나쁘지 않음
- Excellent!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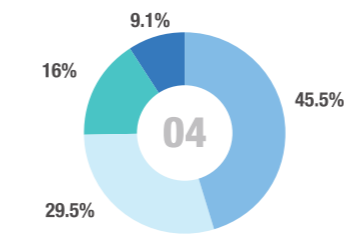
웰크론그룹, 이런 점이 좋다!

- 밀어주고 끌어주는 따뜻한 동료들
- 독보적인 기술력 등 업계를 선도하는 자부심
- 눈치보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 직원 입장을 배려하는 복리후생



상사와 선배 직원에게 바라는 점은?

- 돈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으면
- 질책보다는 따뜻한 칭찬과 응원
- 작은 의견도 경청해주는 자세
- 저녁 회식보다는 티타임을 통한 대화 시간



2018년 새해, 웰크론그룹에 바라는 점은?

- 워라벨 흐름에 맞춘 정시 퇴근 보장
-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적절한 보상
- 직원 의견을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
- 경영진들의 보다 열린 마인드

### Q. 나에게 웰크론그룹은 이다

- **조용필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다.(강원 이준호)
- **롤러코스터** 인생의 격변기를 웰크론에 와서 겪었다.(강원 심우광)
- **무한도전이다** 다양한 직무에 도전할 수 있다.(웰크론 박민지)
- **가정이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스스로 보탬이 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강원 한병국)
- **같이 성장할 동반자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며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강원 차규환)
- **기준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한 곳이 웰크론이기 때문이다.(강원 이준우)
- **성장판이다** 웰크론그룹에 입사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웰크론 박채운)
- **미래다** 나를 발전시켜주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웰크론 임재현)
- **성장통이다** 날 힘들게 하지만, 내가 하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웰크론 김옴)
- **놀이터다**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한택 유창훈)
- **청춘이다** 20대 중반에 입사하여 열정적인 청춘을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한택 김혜미)
- **나무의 뿌리다** 웰크론한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한택 남기주)
- **집이다** 내가 좋아하는 동기들과 함께 많은 시간과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이다.(한택 방대권)
- **동지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며 동지 안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한택 서현지)
- **이정표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한택 이서하)
- **날개다** 꿈을 향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한택 이정현)
- **꿈이다** 회사에서 내 생각을 자유자재로 펼치고 그 생각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택 최현아)

### Q. 두근두근 첫 출근, 웰크론그룹의 첫인상은?

- 처음엔 낯설고 차가웠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따뜻하고 열린 회사인 걸 알게 됐다.(강원 심정기)
- 생각보다 큰 규모의 사옥, 생각지도 못한 SESA CAFE, 가족 같은 동료애가 인상깊었다.(강원 김진호)
-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와 잘 짜여진 Procedure로 업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었다.(강원 한만진)
-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던 반장님과 팀원분들의 분위기가 좋았다.(웰크론 박민지)
- 겨울에 입사했기에 밖은 무척이나 추웠지만, 안은 따뜻한 이글루 같았다.(웰크론 이근우)
- 드라마에서 보던 직장생활, 깔끔한 사무실, 이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감탄했다.(한택 정근영)
- 깔끔하고 잘 정돈된 사무실과 구성원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였다.(한택 엄준식)
- 선배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할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한택 강성주)
- 정돈된 파티션, 열정 있는 직원들, 깔끔한 회사 내외부의 시설들은 딱 내가 다니고 싶었던 직장의 모습이였다.(한택 김우섭)
- 구성원들과 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한택 현성식)

### Q. 내가 상상하는 2022년 웰크론그룹의 모습은?

- 신성장사업 동력원을 개발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회사.(강원 장정원)
-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고 임직원들이 인센티브 받고 환호하고 있을 것 같다.(강원 남도근)
- 웰크론그룹 모두가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웰크론 이경진)
- 리빙 브랜드 업계 선두에 위치하고 업계를 이끌어가는 회사가 되어있을 것이다.(웰크론 장세원)
- 강남에 사옥을 짓고 있을 것 같다.(웰크론 허원영)
- 인지도, 매출 등 그룹 전체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한택 이희철)
- '나 웰크론그룹 다닌다' 자랑할 수 있고 취업하고 싶은 회사 순위에 랭크될 것이다.(한택 김태림)
-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회사, 최적의 근무환경!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한택 김희정)
- 현재 직원들이 뿌리가 되어 2022년에는 가지를 뻗어나가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회사.(한택 박영훈)
- 팀, 부서별 협력을 뛰어넘어 그룹사 간의 기술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술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한택 양남석)
- 구로동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어있을 것이다.(한택 이대희)
- 현재보다 더 좋아진 회사.(한택 이동희)
-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그룹.(한택 정의철)
- 직원 복지가 확대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한택 한상우 계장)



웰크론그룹 제2의 창업 비전 선포식 개최

## 더 높게, 더 눈부시게 웰크론그룹, 제2의 도약을 꿈꾸다

2017년 5월 27일, 웰크론그룹 전 임직원 및 가족, 주요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웰크론그룹 제2의 창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웰크론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을 알리고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25주년 사사 봉정식도 함께 거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은 물론 가족과 협력사 모두 웰크론그룹의 제2의 도약을 응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영규 회장님은 웰크론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알차고 강한 회사,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웰크론그룹, 제2의 창업 선포

지난해 5월 27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웰크론그룹 제2의 창업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영규 회장님은 웰크론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알차고 강한 회사,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명하고 비전 달성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각 회사별로는 2022년 웰크론 연매출 4,700억 원, 웰크론강원 3,000억 원, 웰크론한텍 5,400억 원, 웰크론헬스케어 700억 원, 웰크론글로벌비나 400억 원 달성 목표를 세웠으며, 그룹 경영의 기본 방침을 외형 위주에서 이익과 효율을 중시한 내실경영으로 전환하고, 임직원 성과 보상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2022년 비전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 웰크론 가족 화합의 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날 오전에는 웰크론그룹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웰크론그룹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전 8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족구·농구·피구 등 구기종목대회, 단체 줄넘기, 계주, 소망 탑 쌓기, 물 풍선 받기 등 명랑체육대회,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치어리더들과 함께하는 응원전, 협력

사와 함께하는 족구대회, 레크레이션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기 중간 중간에는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과 도시락이 제공됐고, 임직원의 가족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함께 경기를 관전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체육대회 우승은 웰크론이 차지했으며, 웰크론강원과 웰크론헬스케어가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종목별 MVP로는 축구에 웰크론 박정욱 주임, 족구에 웰크론강원 조대기 부장, 농구에 웰크론헬스케어 최시훈 대리, 피구에 웰크론 권은희 부장이 선정됐다.

### 웰크론그룹, 25년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체육대회 종료 후에는 웰크론그룹의 과거와 미래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레이져쇼가 화려하게 펼쳐졌으며, 웰크론그룹 25주년 사사 봉정식이 진행됐다. 웰크론그룹의 25년 발자취가 담긴 사사는 그룹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공헌해온 웰크론 이경주 사장이 봉정했으며, 웰크론강원 정용훈 부장이 웰크론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의미를 담은 ‘행운의 열쇠’를 회장님께 전달했다. 웰크론한텍 오태웅 사원과 웰크론헬스케어 고윤경 사원은 회장님께 웰크론그룹의 새로운 희망과 영광의 메시지를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봉정식 후에는 이영규 회장님의 ‘제2의 창업’ 선언 및 발표가 진행됐으며, 뒤이어 신입사원들

의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졌다. 신입사원들이 모든 참석자 앞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한 가운데 치열한 경합이 이뤄졌다. 그 결과 ‘씨스타-Shake it’, ‘박진영-어머님이 누구니’에 맞춰 신나는 댄스를 선보인 웰크론 박민지 사원 외 5명(흔들어 엄마 팀)이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웰크론 이근우 사원 외 7명(세.시.도.발 팀)에게, 공동 3등은 웰크론강원 차규한 사원 외 3명(질풍강태 팀), 웰크론헬스케어 이정선 부장 외 9명(뉴페이스 팀), 웰크론한텍 김성민 사원 외 6명(굿백 팀)에게 돌아갔다. 1등 팀에는 70만 원의 상금이, 2등 팀에는 50만 원, 3등 팀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웰크론한텍, 환경·에너지 4.0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 깨끗한 환경,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약

웰크론한텍이 지난해 10월 12일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환경·에너지 4.0 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폐수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쌓아온 웰크론한텍의 폐수처리 핵심기술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모델에 이르기까지 산업 4.0시대를 맞이하여 유망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 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 고효율의 폐수처리 핵심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모델 제시

이번 컨퍼런스에는 식음료, 제약, 제지, 환경, 건설, EPC 등 관련업계와 투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웰크론한텍의 에너지환경 사업부와 플랜트사업부, 웰크론강원 에너지사업본부 임직원의 기술발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6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정책이 본격화되고 신규로 건설되는 산업시설의 방류수질과 방류량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모든 산업군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웰크론한텍 플랜트사업본부 박상성 이사는 “폐수처리 시장이 기존 유기물질 제거 위주에서 고도 처리와 고도 재이용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고농도 폐수처리 분야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업체 간 기술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현황 분석과 함께 웰크론한텍의 최신 고효율 혐기성 폐수처리 기술을 소개했다.

웰크론한텍은 세계적인 폐수처리 업체인 네덜란드의 파크(Paques)와 기술제휴를 맺고 초고효율의 폐수처리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주요 기술로는 IC Reactor, ICX, UASB plus, AFR 등 고효율 혐기성 폐

수처리 공법과 미생물을 이용해 폐수에 함유된 질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아나모क्स(ANAMMOX) 공법,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티오팩(THIOPAQ) 공법이 있다. 또한 자체 증발 농축기술을 적용한 무방류(ZLD, Zero Liquid Discharge) 폐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웰크론한텍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30여 건의 고효율 폐수처리 설비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설계, 품질 및 원가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웰크론한텍의 혐기성 폐수처리 설비를 적용한 A사의 경우 설비 설치 후 전력, 에너지, 폐수처리 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10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어 초기 설비 투자비를 2년 여만에 회수한 바 있다.

#### 그룹사 시너지를 통한 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비전 전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폐수처리 기술과 함께 웰크론강원 성두용 부사장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연소 및 보일러 기술 소개’와 웰크론한텍 최원일 상무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모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물리적 재활용 또는 에너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존 단순 소각과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따라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위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자원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원일 상무는 “웰크론한텍은 폐기물 자원화 플랜트, 에너지 절감설비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강조하며 가족사인 웰크론강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 폐기물 자원화 시설,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설, EPC와 O&M뿐만 아니라 금융조달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 웰크론한텍의 폐수처리기술 소개

##### 혐기성 폐수처리 공법이란?

산소공급이 차단된 소화조에서 화학적으로 결합된 분자상태의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통한 폐수처리 기술로, 유기폐수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보일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전력이나 스팀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혐기성 폐수처리 공법의 종류

- AFR(Anaerobic Flootation Reactor) 방식의 경우 혐기성 세균의 활동을 방해하는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한 아이스크림, 식용유, 축산폐수, 음폐수와 같은 고농도 폐수처리에 효과적인 기술로, 지방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 사용량이 적고 부지 절감뿐만 아니라 슬러지 발생량도 적어 친환경적이며 운영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 성분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므로 기존 방식보다 25~75% 이상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늘릴 수 있다.
- 티오팩(THIOPAQ)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회수하는 장치다. 황은 설비를 부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로,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거나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거가 필수적이다. 티오팩은 혐기성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정제뿐만 아니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LFG(Land Fill Gas)의 정제에도 활용되고 있다.
-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과 하천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를 제거하는 기술인 아나모क्स 공법은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아나모크스를 이용한다. 이 방식은 기존 폐수의 질소분의 공정에 필요한 산소주입과 외부 탄소원 공급 등의 단계를 줄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 폐수 무방류 공법(ZLD)은 발전소의 탈황폐수, 수지재생폐액, 산, 알칼리 폐수와 같은 난분해성 폐수처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이다. 폐수 무방류 공법은 증발 농축 기술을 적용해 재이용할 수 있는 증발수를 얻어 폐수 방류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신규 플랜트의 폐수 방류량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ESCO협회 - 웰크론한텍, 고품폐기물 기술 및 정책 포럼 개최

# 폐기물 자원화,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지난해 11월 17일,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에너지 효율시장 확대와 ESCO사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람, 환경, 건강 중심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교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웰크론한텍이 사단법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와 함께 '고형폐기물 기술 및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 고형연료 자원화, 에너지 절약 위한 첫걸음

이날 포럼에는 ESCO협회 회원사, SRF 발전사업자, 소각로 설계 및 공급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 관계자와 환경단체, 지자체 공무원, SRF 시설 예정지역의 주민대표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서울과기대 배재근 교수는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정책'이란 주제로 기존 매립과 단순소각 방식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자원화, 에너지화로 전환되는 배경과 관련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을 소개하고 선진국의 모범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웰크론한텍의 성두용 부사장이 'SRF 연소 및 보일러 선진기술'을 주제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연소기술의 차이를 소개하며,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기존 소각이나 매립 방식 대비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RF 연소와 대기환경 영향'이라는 주제로 중부발전 김재식 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김재식 부장은 중부발전이 실제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고품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사례로 들어 SRF 연소와 대기환경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은 세종대 전의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원대 박영규 교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웰크론한텍 신재생사업팀 송인규 이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정책적 기초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에너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고품연료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환경부의 고품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강화와 제도개선 방침에 맞게 업계도 환경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제안 등 SRF 발전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RF 연소 보일러 기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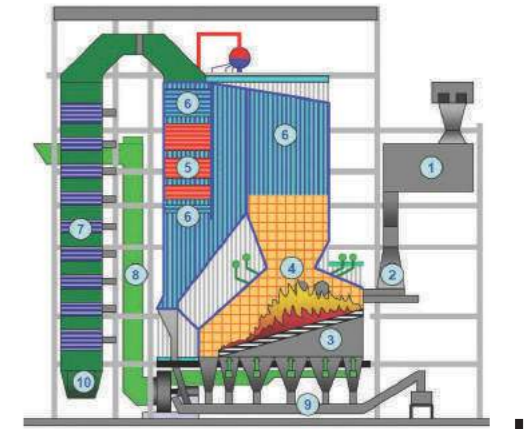
#### 고형연료(SRF/BIO-SRF) 연소 보일러란?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품 연료로 만들어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산업체 공정용 증기, 난방용 증기나 온수, 발전용 증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다. 고품연료는 일반 고품연료(SRF)와 바이오 고품연료(BIO-SRF) 두 종류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고품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연소 특성이 다르다. 예로 BIO-SRF는 연소가 완료될 때까지 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소가 진행되는 반면에 폐합성수지가 주 성분인 SRF의 경우에는 연소 시 즉시 녹아 흘러내리면서 연소가 진행된다. 따라서 고품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료 종류별 적합한 연소장치를 선정하여야 계획된 성능을 보충할 수 있다.

#### 웰크론한원 고품연료 연소 보일러의 특성

웰크론한원이 선진국(독일)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 있는 고품연료 연소 보일러는 왕복식 화격자(Reciprocating step grate) 연소장치를 채택한 1-드럼, 자연순환수관식 보일러로 그동안 국내에 보급되어 오던 2-드럼 수관식 보일러에 비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장기 연속운전이 가능하면서 열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화격자\*는 고품연료의 종류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공냉식과 수냉식 조합형 등 연료의 특성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품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에 의한 고온부식 방지기술을 적용한 보일러로 부식환경에서 성능과 내식성이 우수하다. 현재 웰크론한원이 수행하고 있는 137t/h SRF 발전용 보일러는 고품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웰크론한원의 SRF 보일러 기술력 및 성능의 신뢰를 인정 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웰크론한원은 웰크론한텍이 EPC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산 파워 SRF 발전소에 SRF 연소 발전용 보일러를 공급하고, 상세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양사의 첫 공동실적으로 웰크론한텍의 EPC 능력과 웰크론한원의 발전 보일러 기술을 선보이는 첫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화격자 : 석탄 등의 고체 연료를 연소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주철 또는 강제의 화격자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한 장치





2017 웰크론그룹 임원 부부동반 송년의 밤

# 함께여서 특별했던 겨울 밤

한 해의 끝이 다가옴을 실감하던 12월의 첫 날, 웰크론그룹 임원과 가족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숨가쁘게 일터를 지키느라 또 고단하게 가정을 돌보느라 분주했던 서로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이다. 이날 임원 가족들은 서로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고, 오붓한 식사와 음악을 나누며 어느 때보다도 기억에 남을 따뜻한 겨울 밤을 보냈다.

임원들이 성큼성큼 자신의 가족을 향해 가는 동안 누군가는 손을 흔들고, 누군가는 두 팔을 벌려 포옹할 준비를 한다. 늘 옆에 있어 당연했던 내 가족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 내 가족을 다시금 마주하는 시간

12월 1일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 로비는 들뜬 기운으로 가득하다. '2017 웰크론그룹 임원 부부동반 송년의 밤' 행사에 참여한 임원 가족들은 행사에 앞서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처음 만난 임원 가족들과 통성명을 하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날 행사는 음악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콘셉트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일상의 키워드를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로 꾸며졌다. "어린시절 첫번째 꿈이 무엇이었나"는 사회자의 첫 질문에 웰크론헬스케어 신정재 사장은 "어릴 적 꿈이 CEO였는데 오늘 승진해 꿈을 이뤘다"고 말해 모두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겨울"을 묻는 말에 웰크론한텍 이인복 상무의 아내 김운선 씨는 "오늘 손자의 50일 기념일이라 파티를 하고 왔다. 지금이 제일 좋은 겨울"이라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엔, 임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 시간이 이어졌다. 평소 볼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꼬끝이 찡해오는 사이, 무대 앞에서 한아름 꽃다발을 든 임원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임원들이 성큼성큼 자신의 가족을 향해 가는 동안 누군가는 손을 흔들고, 누군가는 두 팔을 벌려 포옹할 준비를 한다. 늘 옆에 있어 당연했던 내 가족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 오늘 이 시간처럼 따뜻한 회사 만들고파

어느덧 즐거웠던 1부 순서가 훌쩍 지나고,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시간이다. 임원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모처럼 오붓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2부는 '신청곡으로 꾸미는 뮤직 콘서트' 순서. 사회자가 임원들이 직접 보내 온 사연을 소개하고, 공연팀이 신청곡을 연주했다. 30년 간 따뜻한 새벽밥을 지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전한 웰크론강원 박제명 상무, 옆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고 전한 웰크론한텍 성종연 이사 등의 따뜻한 사연 끝에 '사랑밖엔 난 몰라', 'Beauty and the Beast' 등 사랑노래가 울려 퍼졌다. 한껏 고조된 행사장 분위기는 '임원들이 아내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순서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영상편지에 아내들은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함박웃음을 머금기도 했다. 행사 막바지에 다다라 공연팀이 들려준 김광석의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며 임원 부부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날 영상편지에 출연한 웰크론헬스케어 이호균 이사는 "쑥스러웠지만 이 기회를 통해 아내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며 "앞으로 더 따뜻한 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 김운선 씨는 "서먹서먹할까봐 걱정했는데, 참 즐겁고 감동적인 자리였다"고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즐거웠던 하루에 작별을 고하던 시간, 120여 명 임원 가족들의 얼굴엔 각자의 행복이 아로새겨졌다.



웰크론그룹 사원~계장, 임원급 워크숍 개최

## 더 큰 도약을 위한 배움과 소통의 장이

## 펼쳐지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웰크론그룹 사원~계장급 워크숍 및 하반기 2차 임원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사원~계장급 워크숍에는 사원, 주임, 계장급 직원 101명이 참석했으며, 임원 워크숍에는 임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초청 강의와 토론,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2018년 각 사별 사업계획, 벤치마킹 계획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저녁시간에는 모든 임직원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 더 나은 웰크론인로의 성장을 꿈꾸다

첫날 참석자들은 '제 4의 물결이 온다'의 저자 최현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부소장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경제' 강연과, 임종룡 前 금융위원장의 '2018년 경제전망 및 기업 구조 조정 실태' 강연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기의 실체와 극복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별도 강의장에서 사원~계장급 직원들은 '아마존의 눈물'을 제작한 김진만 PD의 '성공적인 롤모델 선정' 강의를 수강하고, 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팀 김병조 과장으로부터 '회의록 작성 노하우'를 배웠다. 김병조 과장은 웰크론그룹에서 회의록을 가장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직원으로 손꼽히고 있어, 이날 사내 특별 강사로 초빙되었다.

이 밖에도 조별 롤모델 선정 및 목표설정을 위한 토의 시간, 이영규 회장의 '사원~계장의 역할 및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 수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때 회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점과 궁금한 점을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보다 솔직한 생각을 듣고, 회장이 직접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임원들은 이행기 고문, 이원규 고문, 한동진 사외이사, 현치웅 부회장을 패널로 한 경영좌담회를 비롯해 웰크론 위성일 상무의 'Alliance' 복리뷰, 웰크론 이윤우 전무의 '네트워킹의 중요성' 발표, 웰크론한텍 박승구 법인장의 중국법인 사업 보고, 웰크론한텍 조용우 지사장의 인도네시아 법인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8년 각 사별 사업계획, 벤치마킹 계획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저녁시간에는 모든 임직원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9일에는 위성일 상무가 웰크론그룹 신 인사제도를 공표했으며, 임원들은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원~계장급 직원들은 8일 진행한 롤모델 선정 및 목표 설정 토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에는 웰크론한텍 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한텍 2조가 우수 발표자로 선정돼 50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에서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독창적인 발표로 호평을 받으며 1~4위를 기록한 직원들의 발표 영상은 1월 월례조회 시 상영하여 웰크론그룹 모든 임직원이 시청하기도 했다.

웰크론그룹은 지난 2017년 3월 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각 사업부문별 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직급별 워크숍을 임원과 직원 공동 워크숍 형태로 실시해오고 있다.





## 고객 만족, 본질에 다가가기

모든 기업이 고객을 배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원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은 배려는 자칫 고객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게 고객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 배려, 버들잎 세 개의 본질

어느 날 호랑이 사냥을 나간 이성계 장군은 몹시 목이 말라 근처 우물로 갔다. 마침 한 여인이 있기에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표주박에 물을 담은 뒤 즉시 건네지 않고 이성계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버들잎 몇 개를 표주박에 띄워서 건네주었다. 이성계는 얼른 물을 마시고 싶었으나 버들잎을 입으로 후후 부느라 천천히 마실 수밖에 없었다. 여인이 버들잎을 띄운 이유는 물을 급히 마시면 급체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된 이성계는 크게 감동하였다. 이 여인은 훗날 이성계와 혼인하여 조선의 첫 왕비가 된 신덕왕후다. 버들잎 성공담은 널리 퍼져나가 한 여인의 귀에도 들어갔다. '버들잎을 띄워주니 왕비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버들잎을 더 많이 띄워야겠다. 그러면 크게 성공하겠지?' 이 여인은 한 나그네에게 표주박에 버들잎을 한 주먹 넣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는 벌컥 화를 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왜 버들잎을 주십니까?" 버들잎 성공담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있다. 버들잎은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소도구에 불과하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잎만 바라본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이 성공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형식을 정한다. 만약 버들잎 개수를 세 개로 정했다면 누가 물을 달라고 하든 누가 물을 주든 표주박에는 항상 버들잎 세 개를 띄운다. 형식을 정한 후에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온다. '아, 버들잎은 본질이 아니구나!'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물을 달라는 사람은 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지, 목이 얼마나 마른지를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는 물을 달라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상황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에 어울리도록 새로운 형식을 정한다. 그리고 이 형식을 또 다시 반복한다. 모든 기업이 고객을 배려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잘못된 배려는 고객의 불만을 낳는다. 표주박에 버들잎을 띄울지 말지를 정하려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업을 살리는 법, 고객처럼 생각하기

배려는 고차원의 행동이다. 직원에게 무작정 고객을 배려하라고 강요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고객을 배려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형식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형식은 기업 혼자서 완성시킬 수 없다. 이를 평가하는 것은 고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식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 만드는 가치다. 고객과 함께 형식을 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식의 기업 사례가 있다.

### #1\_ 고객에게 공개한다



주택을 짓고 판매하는 기업인 일본의 토요타 홈은 모든 클레임을 고객에게 공개한다. 보통 주택을 짓고 양도하며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클레임이 많이 생긴다.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일이기 때문이다. 고객은 건축 지식이 없기에 자신의 생각을 애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고객이 생각한 이미지와 시공 후 실물이 다를 경우가 생긴다. 이때 고객이 클레임을 걸면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건축비도 증가한다. 클레임을 사전에 공개하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타 홈이 택한 방법이다. 고객의 클레임을 살펴보면 내용이 대개 비슷하다. 예를 들어 출입문에 클레임이 걸린다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제품을 들이기에 폭이 좁기 때문이다. 만약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출입문의 폭을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미래 고객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기업에서 이런 클레임과 처리결과를 모두 공개한 결과, 클레임을 본 고객은 출입문의 폭을 넓게 해 달라고 먼저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2\_ 고객에게 물어본다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유니클로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품질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다. 가격이 저렴한 점은 좋지만, 품질이 나쁘면 고객은 다시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고객은 독이다. 유니클로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방법을 택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나쁜 점을 말해 달라고 한 것. 이후 광고를 본 전국의 고객으로부터 만 통 이상의 클레임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기업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도 많았다. 유니클로에는 지금도 많은 클레임이 매일 들어오는데, 모든 내용은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제품에 반영하도록 한다.

### #3\_ 고객처럼 생각한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또 원하지 않는지 알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스마트 클레이머 활용이다. 사원이 스마트 클레이머가 되어 자사 제품에 대해 고객처럼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클레임을 건다. 판매 중인 제품만이 아니라 개발 중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클레임을 건다. 클레임 내용은 함의적이고 표현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스마트 클레이머는 독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방주사와 같다.

고객은 독(毒)이다. 독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기업은 고객이라는 독을 제대로 활용해서 약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진정한 배려를 원한다면 본질을 꿰뚫는 형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류는 기업의 동맥이다. 막힘없이 원활하게 물동량이 흐를 때 기업은 더욱 역동적으로 박동한다. 웰크론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SCM담당들이 쉽 없이 뛰는 이유다. SCM담당 일곱 명의 구성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자리, 품고 있는 열정만큼이나 강렬한 색을 펼치며 에너지를 자랑한다.

THE WHITE GALLERY  
NEW YORK



웰크론 SCM담당  
(SCM추진팀, 음성제품관리팀)

## 일곱 색깔 개성으로 이룬



## 물류 혁신

### 팝아트로 만나는 물류 혁신 주인공

빨강 머리, 파란 머리, 보랏빛 머리까지 파격적인 머리카락 색이 속속 등장한다. 두툼한 손끝으로 세심하게 붓질을 이어가는 일곱 남자.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에 도전한 SCM담당 팀원들이다. “SCM담당은 웰크론의 침구류가 판매처나 고객들에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물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판매지원 조직입니다. 대리점,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 생산 물류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넓지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판매 지원을 위해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365일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물류 현장은 긴장의 연속이다. 열심히 달려온 팀원들을 격려하며 휴식을 선물하고자 마련한 팝아트 그리기 체험.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일곱 남자도 오랜만에 만난 붓과 물감 앞에서 금세 흥미진진한 모습이다. 딸의 얼굴을 선택한 최영민 과장을 제외한 여섯 명은 모두 자화상을 택했다. 강렬한 색상이 인상적인 팝아트로 다시 태어난 초상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랜만에 하는 붓질은 조심스럽지만 색상 선택은 과감하다. 강렬한 원색을 마다않는 다채로운 색 조합에서 각각의 개

성이 드러난다. SCM담당을 이끌고 있는 윤남호 이사가 자랑하는 팀의 강점 역시 개개인의 개성이 모여서 만드는 시너지다. 물류의 시작과 끝인 음성생산현장을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만능 스포츠맨 박병호 대리와 조병모 대리,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음성센터 오퍼레이터이자 할인점 담당 최경민 부장, 백화점과 온라인 물류를 담당하는 꽃미모 최영민 과장, 대리점 물류와 본사 내 업무 기획을 맡고 있는 팀의 든든한 기둥 정경일 차장, 뛰어난 분석력으로 본사 물류와 영업지원을 돕는 김정현 주임, 그리고 이 모든 팀원을 이끄는 윤남호 이사까지 조화롭게 어울린다. 각기 다른 일곱 가지 색이 멋진 무지개를 만들어내듯 SCM담당 일곱 명의 조화가 웰크론 물류가 전국으로 거침없이 뻗어가게 하는 든직한 동력이 된다.

###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일곱 남자

물류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물류 체인은 다변화하며, 시스템은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유통 전반의 변화를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SCM담당들의 몫이다.



“어쩌면 2018년은 더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입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One for everyone, Everyone for one)’의 정신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웰크론의 물류 경쟁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웰크론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10%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며 물류량이 늘고 물류의 중요성 또한 커졌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물류시스템은 통하지 않는 만큼 SCM담당은 물류선진화에 공을 들였다.

“창고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해 음성, 용인, 이천센터에 모두 적용했습니다. 기존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줄이고 없애는 혁신도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정확한 재고관리를 통한 판매 지원이 가능하고, ERP와의 연동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류 및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죠. ‘지속가능한 판매지원형 물류 체계’를 구축해 연간 물류비 2.7억 원 수준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부의 벽을 깨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해법은 소통이었다. 물류 관련한 문제와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경청한 뒤 현장 중심으로 단계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판매 중심으로 물류 시스템이 빠르게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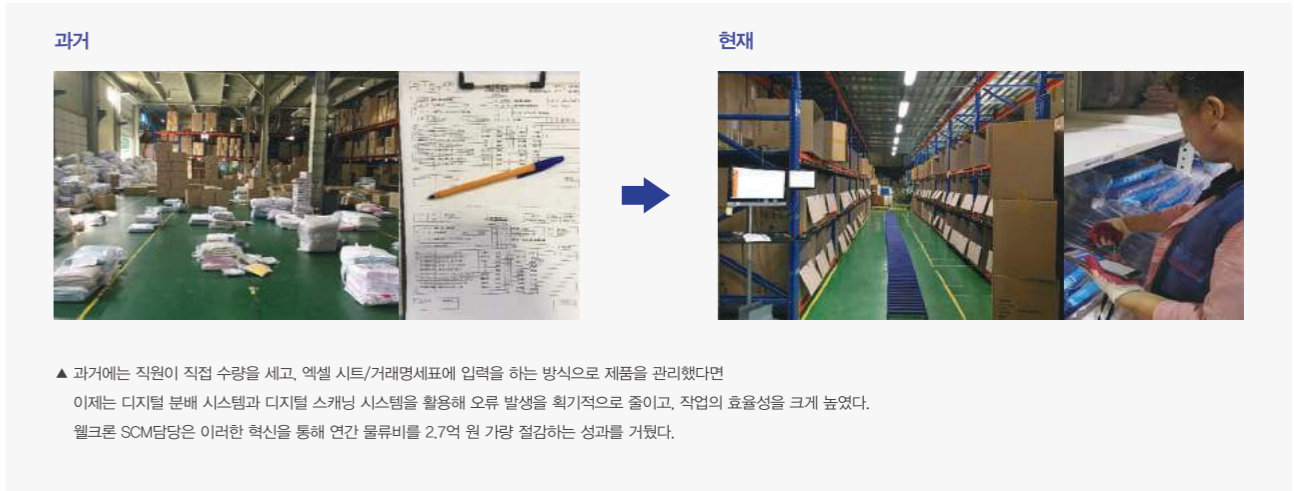
“지원부서는 언제나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특히 물류는 생산과 영업을 연결하는 부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납기를 맞추면서도 가격경쟁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SCM담당자의 지속적인 고민이지요. 물류시스템 개선은 웰크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물류 선진화로 앞서가는 웰크론의 2018년

물류 시스템 혁신의 공을 여러 팀과 나누지만 SCM담당자의 전문성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다. 기본 10년 차 이상의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SCM담당 팀원들은 현장 경험뿐 아니라 기획업무까지 폭넓은 시각을 자랑한다. 변수가 끊이지 않는 물류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착오가 없도록 치밀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능력 또한 소문이 자자하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끈끈하게 뭉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개성 덕분에 혁신의 물꼬가 트이기도 한다. 그 덕분일까. 꼼꼼한 붓질로 어느덧 완성된 자화상은 팝아트의 개성을 한눈에 보여주듯 각기 다른 개성으로 빛난다.

“어쩌면 2018년은 더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입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One for everyone, Everyone for one)’의 정신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웰크론의 물류 경쟁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완성된 그림 속 일곱 명의 주인공은 한결같이 행복한 모습이다. 알록달록 강렬한 색채는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생동감을 내뿜는다. 웰크론의 물류를 책임지는 일곱 남자의 기운이 강하게 새겨진 팝아트 자화상을 통해 어느 해보다 역동적이고 화려하게 빛날 2018년을 기대해본다.



▲ 과거에는 직원이 직접 수량을 세고, 엑셀 시트/거래명세표에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분배 시스템과 디지털 스캐닝 시스템을 활용해 오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웰크론 SCM담당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연간 물류비를 2.7억 원 가량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남호 이사

늘 현장에서 업무 이야기만 나누던 팀원들과 그림을 그리며 함께하니 더 따뜻하고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SCM추진팀을 만들어갑니다.

Mini Interview



최경민 부장

오랜만에 업무 외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잡념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일 차장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확장시절 미술시간이 떠오릅니다. 아이들과도 함께하고 싶은 체험이네요. 2018년에는 커리어를 높여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빛날 2018년을 기대해봅니다.



최영민 과장

딸의 얼굴을 채색하며 딸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어요. 팀원들과 업무 외에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고요. 모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춰가길 바랍니다.



조병도 대리

미술시간의 추억과 있었던 김수성이 함께 깨어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이라 더욱 뜻깊었고요. 모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함께합니다.



박병호 대리

있고 있던 동심이 새삼스럽게 깨어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늘 든든하게 함께하는 팀원들이 아프거나 지치지 않는 2018년을 기대해봅니다.



김정현 주임

팀의 막내로 선배님들과 업무 외 리프레시 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인정받는 2018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웰크론강원 화성공장 광성권 전무 & 이준호 계장

# 맛있는 대화, 상사와 직원의 마음을 잇다



웰크론강원 화성공장 광성권 전무와 이준호 계장이 모처럼 점심 나들이에 나섰다. 이들이 찾은 곳은 평택에 위치한 호랑이배꼽. 전통막걸리를 빚는 양조장이자 한식당을 겸하는 곳이다. 정성스레 차려진 경기도식 반상과 좋은 재료로 빚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평소와 다른 웃음 가득한 대화가 이어졌다. 엄격한 상사와 부하 직원에서, 인생 선배배로 한 걸음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 정성스레 차린 한상에 무르익는 이야기

“평소엔 늘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다함께 식사를 하긴 하지만 무뚝뚝한 남자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지 밥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웃음). 모처럼 이렇게 깔끔한 식당에서, 전

무늬와 단둘이 점심을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기대되네요.”(이준호 계장)  
여느 때라면 오전 업무를 마무리 하느라 분주할 정오 무렵, 웰크론강원 화성공장 광성권 전무와 이준호 계장은 일찌감치 ‘호랑이배꼽’ 식당으로 발걸음 했다. 호랑

이배꼽은 전통막걸리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이자 한식주점. 나즈막한 언덕배기 아래 쫄쫄 숨은 듯 자리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평택에서 손꼽히는 맛집이다. 화성공장에서는 차로 15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곳을 처음 알게 됐다는 두 사람은 한껏 기대를

품고 식당 문을 들어섰다.  
이날 두 사람이 선택한 메뉴는 소고기 떡갈비 정식. 직접 빚은 소고기 떡갈비와 함께 건강한 재료로 만든 각종 반찬이 있는 경기도식 반상을 맛볼 수 있는 메뉴다. 처음 갖는 돌만의 시간에 다소 어색함이 감돌던 테이블에 이윽고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고, 분주한 젓가락질을 따라 두 사람의 대화도 무르익어간다.  
광성권 전무는 지난해 7월 웰크론강원에 입사하며 화성공장 공장장으로 부임했다. 플랜트 분야에서 오랜 관록을 쌓은 그는, 화성공장 운영을 총괄하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준호 계장은 2016년 4월에 웰크론강원에 입사한 2년차 직원으로, 현재 화성공장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 묻자 광성권 전무는 “프로젝트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리스트업 해서 보내주는 일 등을 하고 있다”라며 친절하게 설명을 거둔다. 단출하게 마주앉아 서로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이날만큼은 수십여 년 세월도 뛰어넘어 동고동락하는 ‘동료’에 더 가까워진 듯하다.

### 평소보다 느긋하게

관리직과 현장직을 포함해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0여 명. 광성권 전무는 모두와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직원들은 모두 순수하고 성실하다”며 자랑스레 말한다.  
“작년에 입사해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터라 아직 직원들의 면면을 자세히 알진 못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 이준호 계장은 책임감이 상당한 강한 직원이라 생각해요. 묵묵하게 제 할일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평소 과묵한 성격인 광성권 전무의 예상치 못한 칭찬에 이준호 계장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늘 어렵게만 여겼던 상사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 또한 솔직한 속내를 말하기 시작한다.  
“실은 요즘이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한 번에 몰린 시기예요. 실 틈 없이 바쁜 탓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 있었는데, 전무님께 칭찬을 들으니 웬지 기운이 나네요. 전무님께서도 근엄하신 편이라 종종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늘 저희 얘기를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하시는 점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광성권 전무 또한 직원으로부터 처음 듣는 칭찬에 다소 쑥스러운 모습이다. 한 시간 남짓, 평소보다 느긋한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서로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다. “전무님은 워낙 엄격하셔서 업무상 문제로 찾아뵐 때 특별히 더 긴장된다”라며 조심스레 말하는 이준호 계장을 향해 광성권 전무는 “내가 그랬었냐”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제가 평소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가끔 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지도 몰라요. 아직은 서로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하는 기간이라,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앞으로 그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웃음).”  
테이블에 놓인 열여 개의 접시가 말끔히 비워질 무렵, 호젓한 점심시간도 어느새 끝을 보였다. 서로를 대하는 두 사람의 표정도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다.  
이준호 계장은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상사와 진짜 소통을 하는 자리여서 좋았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성권 전무도 맛있는 식사와 함께한 모처럼의 대화에 만족감을 표했다.  
“반복된 일상을 벗어나 직원과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오늘 이준호 계장의 얘기를 들으며 근엄한 이미지를 없애야겠다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네요.”



### Taste Score

**광성권 전무 ★★★★★**  
음식에 조금 까다로운 제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재료 본연의 맛과 한식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 나물의 씹스름한 맛이 좋았고, 떡갈비가 조금 덜 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준호 계장 ★★★★★**  
든든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씹는 맛이 좋았던 떡갈비와 명태조림이 인상 깊었어요. 전체적으로 간이 슴슴해서 좋았고요. 특히 반찬 없이도 술술 넘어가던 쌀밥 맛이 최고였네요.

---

### Restaurant Info.

**호랑이배꼽(한식주점&양조장)**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충렬길 37  
전화번호 031-683-0981  
영업시간 Lunch 11:30~14:30  
Dinner 17:00~20:00





웰크론한텍 에너지부문 신재생사업본부 한상일 과장 가족

## 사랑을 토핑한 피자, 같이 드실래요?

연말이 가까워오는 어느 주말, 한상일 과장과 아내 윤혜진 씨 그리고 두 딸은 인천에 자리한 치즈스쿨에서 피자 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함께 빵을 반죽하고 치즈를 녹이면서 평소와는 다른 서로의 모습을 보고, 평소와는 다른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조금은 잊고 있던 서로에 대한 애뜻함과 고마움도 느꼈다. 새로운 경험은 종종 잊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함께한 경험은 잊었던 사랑을 다시 찾게 한다. 한상일 과장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확인한 소중한 날이었다.



**한상일 과장은**  
**“웰크론한텍에서 일하면서**  
**부부에서 부모가 되는**  
**기쁨을 맛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하며 웃는다.**

### 웰크론한텍과 함께 자란 우리 가족

“둘째가 아직 어려서 그간 외출을 많이 못했어요. 이번 가족 체험 덕분에 모처럼 가족이 다함께 멀리까지 나왔네요.”

올 겨울은 한상일 과장 가족이 네 명으로서 함께 맞이하는 첫 겨울이다. 2017년 6월 19일, 둘째 딸 세희가 태어났다. 세희는 아빠를 꼭 닮은 선한 눈매, 세상 복을 다 담은 듯한 통통한 볼을 가지고 한상일 과장과 아내 혜진 씨에게 왔다.

“예뻐요. 출근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예뻐요.”

한상일 과장은 웰크론한텍 신재생사업본부에서 전기/계장(제어) 부분의 기술영업, 설계,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첫째 태희와 둘째 세희를 위해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다는 한 과장.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육아를 최대한 함께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무리 집이 회사와 가깝다고 해도, 일이 무척 바쁠 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 그래도 한상일 과장은 회사의 제도적 배려 덕분에 종종 가족과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월급날은 가정의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회사에선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종 설문조사를 해요. 거기서 나온 몇몇 의견을 실제로 채택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워요.”

한편 한상일 과장은 최근 네 가족이 포근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다. 2년 후에는 새로운 보급자리로 이사할 계획이다. 한상일 과장은 “웰크론한텍에서 일하면서 부부에서 부모가 되는 기쁨을 맛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하며 웃는다.

“요즘 회사가 좀 바빠거든요. 도통 시간을 못내고 있었는데, 오늘 또 회사 덕을 보네요. 가족과 함께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게 되다니,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설레요.”

**고사리 손으로 빚은 피자과 함께한 생일상**

첫째 딸 태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동생 세희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치즈. 그래서 집에는 늘 아기 치즈가 가득하다. 식사를 할 때도, 간식을 먹을 때도 태희는 늘 치즈를 찾는다. 이날 피자 만들기 체험을 위해 '치즈 스쿨'에 온다고 했을 때, 태희는 치즈라는 말에 씨익 웃어보였다고.

앞치마를 두른 네 식구는 본격적으로 피자 만들기에 돌입했다. 한상일 과장은 옥수수 가루가 묻은 동글동글한 빵 반죽을 밀대로 밀어 고르고 판판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아빠가 반죽을 미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태희가 “내가 해볼래!” 하며 밀대를 잡았다. 그리고는 밀대를 세로로 세워 반죽을 쿵쿵 치기 시작한다. 반죽은 점점 울룩불룩 제멋대로 튀어나왔다. 흐뭇한 미소로 태희의 놀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상일 과장은, 잠시 후 다시 반죽을 평평하게 다듬기 시작한다. 그러던 한상일 과장의 팔에 어느새 작은 손이 포개졌다. 태희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것. 그렇게 부녀의 피자 도우가 완성됐다. 이때, 동그란 모양이 된 도우를 향해 손을 뻗는 둘째 세희. 엄마 혜진 씨는 “우리 세희도 같이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세희를 꼬옥 안는다. 완성된 도우에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뿌리는 태희의 손놀림이 스타 셰프 못지않게 화려하다. 태희와 아빠는 피자 만들기에 몰두하고, 엄마와 세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곤조곤 얘기를 나눈다.

“태희에게 참 고마워요. 늘 동생을 아껴주거든요. 뭐, 가끔씩 동생에게 토라질 때도 있지만요(웃음). 질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24개월밖에 안 됐는데 참 대견하죠.”

이날은 마침 태희의 두 번째 생일. 피자가 완성되자 엄마, 아빠는 미리 준비해 온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두 개의 초를 꽂은 예쁜 케이크 옆엔 태희가 직접 만든 피자가 올랐다. 이를 지켜보는 태희의 눈망울이 종종 빛난다.

“태희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우리 태희.”

흐뭇한 미소로 태희의 놀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상일 과장은, 잠시 후 다시 반죽을 평평하게 다듬기 시작한다. 그러던 한상일 과장의 팔에 어느새 작은 손이 포개졌다. 태희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것. 그렇게 부녀의 피자 도우가 완성됐다.



**영양 듬뿍, 내 손으로 피자 만들기**

- ① 큰 쟁반에 옥수수 가루를 고르게 펼쳐 놓는다.
- ② 미리 만들어 둔 반죽을 대충대충 굴러 옥수수 가루를 묻힌 후, 반죽을 손바닥으로 꼭 눌러 납작하게 만든다.
- ③ 한 손으로 도우를, 다른 손으로 밀대를 잡고 반죽을 밀어 편다. 동그란 도우 모양이 될 때까지 계속한다.
- ④ 원 모양의 도우가 완성되면 옥수수 가루를 털고 토마토소스를 바른단.
- ⑤ 채 썬 양파, 파프리카, 옥수수, 올리브를 얹고 피자 치즈를 듬뿍 얹는다.
- ⑥ 230°C 오븐에서 20분간 구워내면 완성!

**갓 녹여낸 치즈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한상일 과장과 아내 혜진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났다. 혜진 씨의 빛나는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에 첫 만남부터 마음을 빼앗겼다. 한상일 과장은 초기부터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혜진 씨를 소개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다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게 이제와 생각하니 아쉽고, 미안하다.

“처음 만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뭐든 저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 데 온 힘을 쏟느라 아내만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얼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아내 혜진 씨는 한상일 과장의 이런 마음을 잘 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느라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할 뿐이다.

“내년부터 태희가 어린이집에 다닐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더 신경 쓰려고 해요. 늘 태희와 세희, 저에게 무척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이들만 너무 신경 쓰느라 남편을 많이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커요.”

옆에서 혜진 씨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한상일 과장이 나섰다.

“미안하기는, 내가 미안하지 뭐. 내년엔 우리 더 잘 살자.”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 말이 있다. 미안한 마음 덕분에 서로에게 더 조심하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되기 때문이란단. 그런 면에서 한상일 과장 부부는 진정 행복한 부부가 아닐까.

평소에 표현하지 못한 서로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전하며 이날 체험이 마무리 되었다. 한상일 과장 가족이 외투를 여미고 체험장을 나섰다. 바람이 휘휘 거칠게 부는 날이었지만 이들 가족 사이엔 온기가 가득하다. 부부와 두 딸 모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부드럽고 달콤하다. 마치 피자 위에서 갓 녹여낸 치즈처럼.

2017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

# 연탄과 함께 희망을 배달하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이 인천시 십정동에서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하루 평균기온이 영하 3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에 칼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직원들의 이마엔 이내 땀방울이 맺힌다. 손에서 손으로, 설 새 없이 전달돼 오는 연탄을 나르느라 허리 한 번 펴기 힘들지만,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 뒀던 오늘. 이날 십정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는 한겨울을 조금이나마 덥혀 줄 연탄 3,000장이 배달됐다.

한겨울 강추위에도 마음만은 따뜻했던 날  
매년 연말, 웰크론그룹에서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2010년 사내 봉사단의 연탄 나눔 행사에서 시작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또한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된 44명의 임직원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오후 2시경, 면장갑과 고무장갑 그리고 마스크와 핫팩으로 단단히 무장한 직원들은 봉사활동 장소에 모였다. 이날, 십정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연탄은 총 3,000장. 직원들은 수레가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골목길 앞에 수북이 쌓인 연탄 3,000장을 보고는, 이를 손수 옮길 동선부터 고민했다.  
“이쪽 길이 좁으니까 여기 15명 오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세요!” 드디어 연탄 나르기가 시작됐다. 좁은 골목길에 줄지어 선 직원들은 쌓인 연탄을 하나씩 들어 손에서 손으로 옮긴다. 처음에는 손발이 맞지 않아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직원들은 조금씩 박자를 맞추어 효율적으로 연탄을 전달하는 법을 터득했다.  
누군가 “잠시 대기”라고 말하면 모든 직원이 연탄 전달을 멈추고,



“다시 고(Go)!”하면 재빠르게 손에서 손으로 연탄이 넘어갔다. “좀 당겨주세요”라고 하면 그 쪽으로 간격을 좁혀 이동하고, “다시 대기”하면 또 잠시 쉬어갔다. 한 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하며 마치 테크노 댄스를 추듯 모든 임직원이 같은 움직임으로 열심히 연탄을 옮기고 있을 때였다.  
“이제 가동 정상화됐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제 속도가 좀 붙기 시작했다.

### 연탄에 젊음을 더해 배달합니다

“한 겨울 내려면 600장도 빠듯해요. 연탄 700장은 있어야 넉넉하죠.”  
현장에 있던 인천직접자사 봉사자는 열심히 연탄을 나르는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연탄을 받는 가정집의 얘기도 들려준다.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터라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연탄 몇 장 사기도 힘들다고. 어느 집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연탄을 몇 장씩 사러 혼자 나가는 게 고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탄 나눔 봉사로 창고에 연탄을 쌓아 두면 “올 겨울도 덕분에 안 얼어죽겠네”라며 정말 고마워하신다고.  
“그러니까 힘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웰크론타렉 경영지원팀 김은영 사원은 연탄이 들어오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할머니의 “고맙습니다”란 인사에 마음이 따뜻하게 부풀었다.  
“할머니를 뵈었을 때는 마음이 쩡했어요. 오늘 분명 추운 날씨인데 희한하게 춥질 않네요. 동료들과 함께하니 재미있고, 뿌듯해요. 우리끼리 ‘당겨주세요’, ‘자리바꿔요’ 하며 일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도 신기하고요.”  
웰크론 리빙생산팀 장세원 사원은 “오늘 처음 본 다른 그룹사 직원들과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줄 몰랐는데 놀랍네요. 사회로부터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새삼 자랑스럽고요. 회사 차원에서 하는 다른 봉사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라며 30대의 첫 봉사활동을 웰크론그룹에서 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서른 장 남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연탄 배달의 끝이 보였다. 곳곳에서 “화이팅!”을 연신 외치며 몸놀림은 더 경쾌해진다. 웰크론 임직원들의 젊고 밝은 에너지가 연탄과 함께 인천 십정동 곳곳으로 배달되었다.

웰크론한텍

# 리튬 농축 · 결정설비, 용제회수설비

## Waste MC & LP Recovery System

전기자동차 · 스마트폰 · 노트북 등의 수요 확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웰크론한텍이 에너지절감 농축설비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 2차전지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2차전지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글로벌 전기차 · 배터리 전문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지난 2015년 230억 달러(25조 7,715억 원)에서 오는 2020년 800억 달러(89조 6,400억 원)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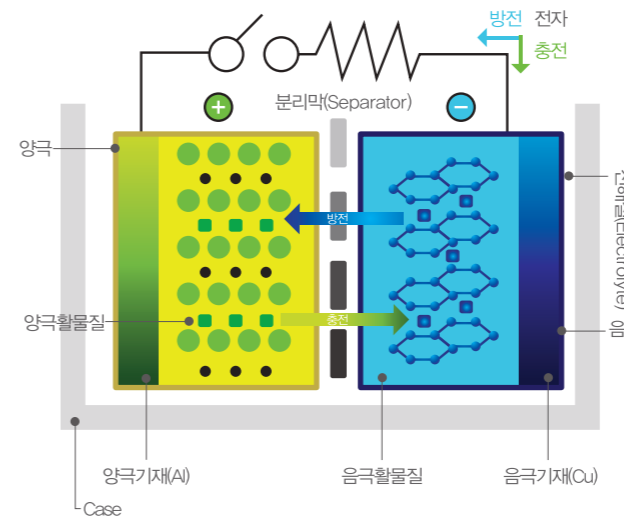
2차전지는 통상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개의 소재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리튬은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에 쓰이는 핵심소재로 염수(鹽水 · 소금물)에 고농도로 녹아있다. 리튬 함량이 높은 염수는 남미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고 리튬의 50% 이상이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전량 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포스코가 국내 첫 리튬 생산에 성공하며, 웰크론한텍은 포스코에 약 23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농축 · 결정설비를 공급했다.

웰크론한텍의 리튬 농축 · 결정설비는 리튬이 함유된 염수를 농축해, 리튬만을 추출해내는 설비로 기존 자연증발법에 의한 리튬 회수율보다 생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리튬회수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농축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증기를 재사용함으로써 스팀에너지 절감 효율을 2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절감 기술력이 담긴 설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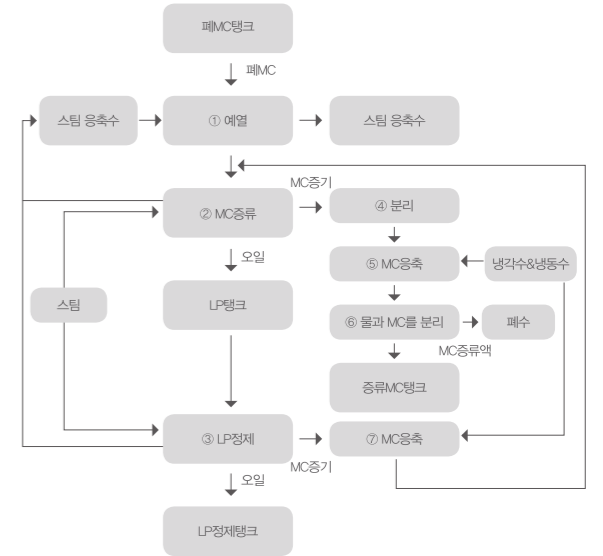
또한 웰크론한텍은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한 습식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제회수설비(Waste MC & LP Recovery System)도 갖추고 있다. 2차전지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소재로, 리튬이온이 이 분리막에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분리막의 구멍 크기는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서도 안된다. 너무 크면 이온전지의 이동이 너무 활발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작으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2차전지 분리막은 제조방식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습식 분리막은 건식에 비해 제조 비용은 다소 높으나, 품질과 강도가 우수하여 현재 세계 분리막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습식 분리막 생산에는 용제(MC, Methylene Chloride)가 사용되는데 웰크론한텍의 용제회수설비는 용제에 녹아있는 오일을 분리하여 용제(MC)와 오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원가를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높은 회수율은 물론, 처리량 대비 설비 규모가 작아 설치가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 부지 이용 효율까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 리튬 2차전지의 구조와 충전 · 방전 원리



### \*용제(MC)회수 순서도



### 용제(MC)회수 과정

[\\*용제\(MC\)회수 순서도 참고](#)

**① 예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증류와 정제시스템에서 스팀을 사용한 후 발생한 응축수를 폐MC와 열 교환시켜 폐MC를 가열합니다.

스터(Demister : MC증기 중 LP를 제거하는 장치)를 거쳐 LP의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MC의 순도를 높여줍니다.

**② 증류**  
증류 설비는 두 물질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MC와 LP를 분리하며, 이때의 가열원은 스팀을 사용합니다. 증류된 MC는 분리기로 이동하며 LP는 LP탱크로 이동합니다.

**⑤ 응축**  
냉각수와 냉동수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고순도의 MC증기를 응축합니다.

**③ 정제시스템**  
증류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MC와 LP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 분리합니다. 가열원은 스팀을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정제설비 내부를 고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끓는점을 낮춰서 LP에 섞여있는 소량의 MC까지 분리해냅니다. LP는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제되어 LP저장탱크로 보내며, MC증기는 응축시키기 위해 응축기로 보냅니다.

**⑥ 물과 MC를 분리**  
분리기에서 두 물질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물과 MC를 분리하며, 극소량의 물과 MC를 분리함으로써 순도 높은 MC를 얻을 수 있습니다. MC는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증류되어 MC증류탱크로 보냅니다.

**④ 분리**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기/액 분리기입니다. 이때 응축된 고순도의 MC 일부를 분리기 상부로 스프레이 분사하고, 분리기 상부의 데미

**⑦ 잔여 MC 응축**  
냉동수를 이용하여 LP 내 미량 포함된 MC증기를 응축시키며, 이때 응축된 MC는 증류설비로 재투입 됩니다.

\* MC: Methylene Chloride  
\* LP: Liquid Paraffin  
\* MC&LP는 분리막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를 말함



▲ 웰크론한텍이 국내 A사에 공급한 용제회수설비



거친 피부를 꿀 피부로 만드는 비법

## 달콤함 가득, 꿀 피부 만들기

겨울철 한파에 피부는 쉽게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특히 과도한 실내 난방과 차디찬 겨울바람은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범이다. 손상된 피부를 지키려면 평소보다 부지런한 피부 관리가 필요할 터. 촉촉함과 영양 가득한 꿀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다.



### 겨울철 피부 관리에 주목하자

겨울 추위에 건조하다 못해 푸석해지는 피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 스킨케어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재정비하는 일이 우선이다. 지친 피부가 충분히 휴식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하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올바른 스킨케어의 기본. 피부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수시로 섭취하는 것도 좋다.

특히 비타민 B, 비타민 E,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아보카도나 피부 보습과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석류, 피부 항산화를 돕는 토마토와 연어, 각종 견과류 등은 피부를 위한 때 빼놓을 수 없는 식품들이다.

반면 체내 비타민과 무기질을 파괴하는 술과

체내 산소 공급을 저해하는 담배는 과할 경우 피부 노화를 촉진하니 되도록 자제할 것을 권장한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했다면 피부 각질 제거에 신경쓸 차례. 화장이 유난히 뜯다면 건조한 겨울 공기로 인해 묵이는 것이 좋다. 각질 제거제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것. 필링제 알갱이가 너무 크거나 때수건 같이 피부 자극이 심한 도구를 이용해 무턱대고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욱 손상될 수 있다. 불필요한 각질 제거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피부에 적절한 영양과 보습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때 스킨케어 제품은 성분을 꼼꼼히 따져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한 저자극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저자극 천연 성분 필라그린이 대세

최근 SNS와 입소문을 통해 주목받으며 새롭게 떠오른 저자극 천연 성분으로 필라그린(Filaggrin)이 있다. 필라그린은 포유류의 표피 세포에서 분리된 천연 보습 인자 단백질로, 피부 자생력을 높여 무너진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고 스스로 피부를 보호해 바르면 바를수록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셀미인(CELLMIN)에서 선보인 셀미인 필라그린은 이러한 필라그린 성분의 장점을 알차게 담은 제품이다.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선보이는 셀미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연구해 출시했는데, 그 품질을 인정 받아 최근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의 이미용 아이디어 부문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셀미인 필라그린 스킨케어의 품질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셀미인 필라그린 스킨 케어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보습 강화 제품으로 클렌저, 에센셜 토너, 로션, 크림으로 구성돼 있다. 강화사자 발쑥, 감잎, 편백잎, 녹차 등 국내산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특허 조성물로 만들어 유해균과 악취 제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해파리에서 추출한 단백질 활성화 성분과 리포좀 세라마이드가 함유돼 흡수가 빠르면서도 피부장벽 강화에 따른 보습력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다.

### 셀미인 필라그린으로 꿀피부 만들기

이중에서도 스킨 케어의 첫 단계에서 피부를 보호하며 밖에서 따라온 미세먼지까지 말끔히 씻어낼 셀미인 필라그린 클렌저는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산성 보습 클렌저다. 특유의 탱글탱글한 수분젤 타입의 제형은 클렌징하는 동안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한다. 저자극 포물러가 피부 노폐물은 순하게 제거하고 피부 표면의 수분 보호막은 그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 세안 시 클렌저를 적당량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클렌징하고 미



운수로 깨끗이 씻어내면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도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세안 후 피부결을 정돈하고 들뜨 각질을 잠재워주는 셀미인 필라그린 에센셜 토너는 피부에 친화적인 고보습, 고농축 에센셜 토너로 출시됐다. 피부 지질 구성성분인 세라마이드 3와 천연 보습 인자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고 고농축 에센스 성분이 피부에 수렴 및 진정 효과를 부여하는데, 건조함에 지쳐 쉽게 예민해지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준다.

셀미인 필라그린 로션은 피부 속 건조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저자극 수분 충전 로션이다. 토너와 마찬가지로 세라마이드 3와 천연 보습 인자를 함유해 피부에 부드러운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고 촉촉함을 강화시킨다. 또한 쉐어버터 성분으로 보다 탄탄한 보습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키도록 했다. 셀미인 필라그린 로션을 바를 때 허얇게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성분인 디메치콘(Dimethicone)을 함유하지 않았기 때문. 당황하지 말고 제품을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톡톡 두드리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마지막까지 보습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셀미인 필라그린 크림에 주목하자. 겉보습과 속보습, 경표피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3중 보습 크림인 이 제품은 피부에 빈틈 없이 수분 보호막을 입혀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하며 보습을 장시간 유지시킨다. 리포좀 세라마이드의 촉촉 보

습 코팅 크림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를 리포좀화하여 흡수력과 피부 친화력을 높이고 피부 수분 증발을 감소시켜 끈적임 없이 피부 보습막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셀미인 필라그린 크림을 2주간만 20~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사용 2주 후 피부 장벽 개선, 피부 겉 보습 개선, 피부 속 보습 개선, 경표피 수분 손실량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열심히 관리하면 그만큼 티를 내 주는 것이 피부다. 신년을 맞아 보다 현명한 피부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면 보습 '꿀판왕' 셀미인 필라그린 스킨 케어에 주목하자. 보습과 영양이 듬뿍 담긴, 달콤한 꿀 피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세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9층  
문의 : 02-3479-6005



### 세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 믿고 쓰는 세사 침구,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요

수입 침구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 여러 매장 중에서도 격전지에 속한다. 2016년 4월부터 세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운영하는 김진이 매니저는 세사만의 독보적인 품질 그리고 ‘진심’을 담은 고객 응대로 매해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수입 브랜드 뒤지지 않는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

“침구 브랜드 슌마스터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세사와 같은 기능성 침구 브랜드는 처음이예요. 더군다나 이곳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본사에서 특화매장으로 지정한 곳이라 더욱더 신경 쓰고 있죠. 수입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지만, 그에 절대 뒤지지 않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문을 연 세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오픈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있다. 고기능성 소재라는 세사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20여 년 경력의 슌마스터 김진이 매니저가 만나 이룬 결과다. ‘나부터 제품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고객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김진이 매니저는 평소 본사에서 제공한 책자는 물론 원단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살핀다. 직접 세사 침구를 사용하여 몸소 제품의 장점을 분석하는 건 기본이다.

“저희 침구 대표 소재인 웰루쉬 원단은 초고밀도라서 열을 가두는 효과가 뛰어나 무척 가볍고 따뜻해요. 먼지가 안 나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지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느껴보니 더 자신 있게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근래에는 항균 기능 가공처리를 한 ‘웰루쉬 메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희 매장의 주력 상품이기도 하죠.”

#### 늘 최고의 매장 만들고파

김진이 매니저의 고객 응대 노하우는 ‘진심’이다. 그는 처음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상품만 팔기 위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통해 고객의 취향을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 결국 모든 건 사람과의 관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세사 매장을 찾는 단골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중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고객도 있다.

“매장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사 때문에 침구를 사러 온 고객이 있었어요. 이후 백화점에 들를 때면 몰래 커피를 두고 가기도 하셨는데, 한 번은 백화점에서 예단이불을 구경하던 한 고객을 직접 저희 매장으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동했죠. 그럴 때 가장 보람돼요.”

김진이 매니저는 매일 현장에서 고객 의견을 접하며, 개선점을 본사에 전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소재나 디자인 등에 관한 고객의 요구도 가능한 한 매장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덕분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만 단독으로 갖춘 제품들도 있다.

“제 목표요? 항상 최고의 매장을 만드는 거죠 (웃음).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해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도 매출 신장을 이뤄서 뿌듯하고요. 하지만 늘 자만하지 않고, 최고의 매장을 유지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할 겁니다.”



세사리빙 대구 감삼점  
주소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21  
문의 : 053-553-7989

### 세사리빙 대구 감삼점

## 이젠 고객들이 먼저 알아요, 세사리빙의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세사리빙 제품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는 단골고객 덕에 7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송해숙 점장.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매장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기에 고객 증대와 매출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 처음 찾은 고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경상북도를 통틀어 세사리빙 매장이 두 곳뿐이던 시절. 이곡동에 터를 잡고 약 5년 간 세사리빙 매장을 운영해 온 송해숙 점장. 그리고 지난 2015년 9월 1일, 이곳 감삼점으로 이전해 온 뒤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곡동에서 세사리빙을 운영할 때 단골고객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5년 넘게 한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찾아주는 고객들이 늘었는데요. 감삼점으로의 이전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품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새롭게 오픈한 이후 약 2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세사리빙을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송해숙 점장. 전 매장에서 인연이 닿았던 고객들까지 이곳 감삼점을 찾아주고 있다고.

“고객 응대에 있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고객님들이 그냥 보고 가시

더라도 세사리빙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입소문을 타고 재방문과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충성고객 확보

물론 보이지 않는 노력도 많다. 고객이 무얼 하든 사더라도 꼭 기억했다가 다음 방문 시에 안내해주고, 반품이나 AS 등 고객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려 노력한다. 특히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송해숙 점장.

“제품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죠. 저희 제품 원단인 ‘웰루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세사리빙만의 기술력, 국산 제품임을 강조하죠. 덕분에 웰루쉬 메디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단이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최근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가 감삼점을 여러 번 찾아오신 일도 있다. 여러 침구를 사용해봤지만, 세사리빙 제품이 자신에게 딱 맞다며 이를 추천해준 송해숙 점장에 대한 고마움과 잊을 수 없는 친절함에 계속 매장을 찾고 있다고 한다.

“7년 전, 세사리빙 매장을 처음 열었을 당시와 비교한다면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고 제품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불은 생필품과 달리 직접 매장을 찾는 게 사실 마음먹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알기에 오시는 고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고객 응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상상해 보라. 모든 기기가 스마트화되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며, 이를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 인공지능 스피커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집안의 모든 기기가 최적화된 환경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카가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하는 그런 세상 말이다. 스마트폰 다음 시대는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와 있다.

## 사물인터넷은 지금 어디?

###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현실로

마블의 히어로 영화 <아이언맨>을 본 이라면 다가올 미래를 보다 뚜렷이 그릴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비서이자 집사인 '자비스'와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자비스는 자료를 찾거나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가 하면 실제로 아이언맨 슈트를 조종해 악당과 싸운다. 토니는 이 모든 것을 음성으로 지시할 뿐, 실제 행동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자비스의 몫이다. 영화 속 토니처럼 우리도 주변의 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간단히 말해 세상의 모든 물건에 통신 및 센서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PC나 스마트폰을 넘어 각종 전자기기와 리빙제품, 자동차 등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기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 몇 년 간 구글과 아마존, 샤오미, 삼성전자 등 세계 각 분야의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에 노력해왔다. 특히 아마존과 구글은 각각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내놓으며 가상 비서가 집을 관장하는 스마트 홈 구축을 실현했다. 이들은 최대 6명의 음성을 구분해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는



사물인터넷 발전의 주요 포인트다. 현재는 시작 단계지만 미래의 가상 비서는 사용자의 개별 목소리를 완벽히 구분해 모든 기기를 자유롭게 음성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애기다. 이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우선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7'에서 인텔은 5G 모뎀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며 기가비트급 속도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5G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가 향후 10년간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ion) 시대를 불러와 우리 삶이 혁신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5G 서비스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20년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KT는 한 발 앞서 올해 2월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 상용화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의류·뷰티·헬스케어 분야에

#### 도입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최근 의류와 뷰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보인다. 애플의 아이워치, 삼성전자의 기어 핏, 샤오미의 미밴드 등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는 이미 보편화된 상황. 이 다음의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 렌즈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연구에 착용하는 증강 현실 스마트 렌

즈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에 따르면 스마트 렌즈는 눈 깜빡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와 함께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구글은 단순히 사진 촬영 기능을 넘어, 망막 안쪽에 넣는 형식의 헬스케어 제품을 특허로 출원했다. 이것은 무선으로 망막 안쪽에 스마트 렌즈를 조정해 시력을 보정하고 전력도 무선으로 공급받을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의류업계는 단순 웨어러블 연동을 넘어 의류 자체가 스마트 기기인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일본 화섬업계는 스마트 섬유와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섬유업체 도레이(Toray)는 최근 일본 최대 통신회사 NTT와 생체 정보 섬유 브랜드 '히토에(Hitoe)'를 공동 개발했다. 히토에로 만든 전극을 내의 옷감이나 봉제 실로 활용하면 심장의 근육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미쯔후지(Mizuhuji)는 의학계와 공동 프로젝트로 간질 발작을 사전에 감지하는 섬유 센서가 부착된 셔츠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셔츠 가슴 부분에 있는 전극이 환자의 심장 데이터를 읽고 스마트폰에 전송해 알람을 보내는 구조다. 한편, 최근 서울 G밸리패션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스마트 패션 제품들을 전시해 이목이 집중됐다. 클라우드펀딩 킥스타터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화제를 모은 제로아이랩의 골전도를 활용한 스마

트 모자 '제로아이'를 비롯, 자체 개발한 센서 밴드를 스포츠웨어에 적용하고 사용자의 컨디션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보여주는 바디기어의 '기어비트 S'도 전시됐다. 섬유 분야에는 나노섬유로 유명한 에프티이앤이가 참여해 국내외 20여 건 특허 출원을 완료한 미세먼지 차단 소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사물인터넷 기술

침구업계에서는 웰크론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코골이 개선용 베개' 특허를 획득하며 스마트 침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코골이 베개는 사용자의 코골이 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에어백을 팽창시킴으로써 기도를 확보하고, 코골이를 개선한다. 사물인터넷은 뷰티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플휴먼(Simple Human)이 선보인 '센서 미러 프로'는 화장 거울의 여러가지 센서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거울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화장 조명을 켜주고 장소 밝기에 맞춰 조명 색을 바꿔준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와 연결해 활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얼굴 한 부분을 5~10배로 확대해준다.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도 'CES 2017'에서 피부에 붙이고 스마트폰 앱으로 자외선 노출량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패치 '마이 UV 패치'를 선보인 바 있다.

### 앞으로 10년 후, 사물인터넷의 미래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홈을 넘어 스마트 시티로의 발전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4차산업 혁명과 큰 궤를 같이 하는 이 기술은 아직 국내에 이렇다 할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상용화까지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분명 진화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크나큰 반향과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특히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융합하는 시기가 오면 산업 전반에 걸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 News



▲ (좌측부터) 웰크론 신정재 사장, 웰크론한텍 이기창 사장, 웰크론한텍 이영식 사장, 웰크론한텍 이범용 사장



**웰크론그룹, 몽골에 1억 5천만 원 상당 여성용품 지원**

웰크론그룹이 몽골 여성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웰크론그룹은 지난해 12월 26일 (사)굿피플 사무실에서 몽골 여성을 돕기 위한 위생용품 전달식을 갖고, 자회사인 웰크론헬스케어의 한방여성용품 브랜드 예지미인 위생용품을 국제구호개발 NGO인 (사)굿피플에 전달했다. 예지미인 위생용품의 컨테이너 상차 작업은 28일 진행됐고 2018년 1월 31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몽골 적십자사와 저소득 지역 동사무소 등을 통해 몽골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고루 전달되고 있다.

이번 지원활동은 웰크론그룹과 (사)굿피플이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웰크론그룹은 몽골 내 경제적 고립지역 여성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몽골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몽골 여성들은 20대 초반이면 대부분 결혼식 없이 동거를 시작하는데, 남성들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과 생계 해결을 도맡게 되며, 가난과 질병 등 생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한편 수도 울란바토르 이외에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에 웰크론그룹의 여성 위생용품은 울란바토르는 물론, 러시아 국경지역인 아이막 북부지방 17개 행정구역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웰크론 신정재 사장은 “몽골은 교육열이 높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웰크론그룹이 지원한 예지미인 여성 위생용품이 몽골 소외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원활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웰크론그룹 25년사’,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우수사사대상 수상**

웰크론그룹의 ‘웰크론그룹 25년사’가 ‘2017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사사부문 우수사사대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웰크론그룹 25년사’는 1992년 웰크론의 전신인 ㈜은성코퍼레이션 창립부터 웰크론,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등 7개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사로 도약하기까지 25년간의 웰크론그룹의 성장사를 담은 사사다. 2016년 5월18일 편찬사업에 착수해 1년여만인 2017년 5월 27일 창립 25주년에 맞춰 발간됐으며, 임직원 인터뷰와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기록해 ‘사사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편견을 깨고, 스토리텔링 구조로 제작해 소선택을 읽듯 편안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사는 총 228페이지 분량으로 1장에서는 1992년 웰크론의 전신인 ㈜은성코퍼레이션의 태동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위상을 높여가는 과정을, 2장에서는 웰크론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7년 웰크론헬스케어, 2010년 웰크론한텍, 웰크론강원과 가족을 이루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웰크론그룹의 발자취와 이영규 회장의 경영철학, 임직원들과 함께한 그룹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3장 ‘웰크론그룹으로 평정하라’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과감한 도전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웰크론그룹의 비전을 상세하게 다뤘다.

지난해 2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29개 정부기관 및 언론사 등이 후원하는 시상으로, 국가기관 및 기업, 단체 등에서 발간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관련 매체를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수상부문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제작물(방송, 사사, 사진 홍보물, 웹사이트 등) 관련 25개 부문이다.



**웰크론한텍·웰크론강원 294억 원 규모 첫 공동실적 달성**

웰크론한텍이 ㈜이테크건설과 243억 원 규모의 대산 SRF 발전소 건설공사에 설비납품 계약과 51억 원 규모의 설치, 시공 계약 등 총 294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지난해 4월 체결했다. 이번 건설공사에는 웰크론강원이 142억 원 규모의 발전용 보일러를 공급하게 되어 웰크론한텍과 웰크론강원이 첫 공동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테크건설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건설 예정인 대산파워 SRF 발전소에 소각로, SRF 연소 발전용 보일러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는 건으로 웰크론한텍은 SRF 발전 시설에 대한 설계, 조달, 현장 시공, 시운전, 성능보증까지 아우르는 EPC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웰크론강원은 발전소의 핵심설비인 발전용 보일러 공급과 상세설계를 담당하게 된다. 웰크론한텍은 웰크론강원과 142억 원 규모의 보일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웰크론한텍과 웰크론강원의 첫 공동 실적으로 웰크론한텍의 EPC 능력과 웰크론강원의 발전 보일러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첫 프로젝트다. 대산파워 SRF 발전소는 SRF(고형연료)를 발전원료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이다. 하루 평균 510~640톤의 SRF를 원료를 소각해 생산된 스팀으로 발전터빈을 돌려 29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SRF 발전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아시아에서도 이례적인 규모이다. SRF(고형연료) 발전은 단순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 할 수 있고, 스팀을 이용한 난방에너지 공급과 전기 생산으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그동안 웰크론한텍과 웰크론강원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크다”며, “양사간의 원활한 소통과 기술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후 새로운 영업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ews



### welcron한텍, 408억 원 규모 인천 영종도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

welcron한텍이 지난 11월 29일 인천 영종도 운서역 인근에 건설될 440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 건은 인천 영종도 오피스텔 시행사인 ㈜에스코리아 및 ㈜우전과의 공사도급계약 건으로, 한국자산신탁이 개발신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총 공사비는 408억 원이며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사 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안정적인 도급공사로, 완료 기한은 착공 이후 22개월이다.

인천 영종도 오피스텔 신축 프로젝트는 인천 영종도 운서역 인근 3,281㎡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440실을 짓고, 6,59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영종하늘도시 서측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직선거리로 6.5km, 운서역과는 직선거리 4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welcron한텍은 2016년 11월 305억 원 규모 '양지 포레스토리' 타운하우스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2017년 7월에는 262억 원 규모의 강릉 영진리 도시형생활주택을 수주하는 등 기존 산업시설, 물류센터, 연구시설, 클린룸시설 등 산업용 건설부문에서 주택건설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그리고 이번 인천 영종도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로 신탁개발 사업부문에서 연이은 대형 수주실적을 거두고 있다.

welcron한텍 건설부문 관계자는 "연이은 개발신탁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welcron한텍의 시공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공사로서 위험 부담이 적은 개발신탁사업의 추가 실적 확보를 통해 welcron한텍이 중견 플랜트 건설전문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welcron글로벌비나 우수직원, welcron그룹 본사 방문 및 한국 문화 체험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welcron글로벌비나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3인이 welcron그룹 본사를 방문해 welcron그룹 가족사의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welcron글로벌비나는 매년 우수직원을 선발해 welcron그룹 본사가 있는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welcron그룹의 위상과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기업인 welcron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welcron그룹 본사로 초청된 직원은 welcron글로벌비나 침구생산팀 캄(Cam), 내수영업팀 휘엔(Huyen), 클리너생산팀 반(Van) 사원으로, 평소 성실하고 우수한 근무태도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왔다. welcron글로벌비나 직원들은 18일 한국에 입국해 19일 welcron헬스케어 인천 공장을 방문했으며, 20일에는 welcron의 클리너 협력업체와 침구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21~22일 주말 동안에는 경복궁, 삼청동 등 시티투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3일에는 welcron 음성공장과 welcron강원과 welcron한텍 화성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직원들은 "우수직원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으며,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베트남도 한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고 싶다"고 방문소감을 전했다.



### 친환경 화장품 셀미인,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선정

welcron헬스케어의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셀미인(CELLMIN)'의 필라그린 화장품과 홈클리닉 마스크팩이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에서 이마용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는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하이서울' 브랜드를 부여하고 판로 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유통 및 제조전문가로 구성된 SBA 유통브랜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품질 인증과 공신력 제고 효과가 크다. 셀미인의 필라그린 화장품과 홈클리닉 마스크팩은 상품 경쟁력과 시장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및 국내외 온라인 판로 지원, SNS를 활용한 바이럴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주관하는 'HIT500'에도 선정된 바 있다. HIT500은 소비자들의 호응도 평가와 유통 MD들의 상품성 평가를 통해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판로 확대 지원과 SNS 및 언론홍보를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다.

셀미인의 홈클리닉 마스크팩은 welcron에서 개발한 특수 시트에 천연 원료의 고농축 에센스를 접목한 제품으로, 기존의 미용 마스크팩이 시트 외부에 첨가물을 흡착시키는 것과 달리 시트 내부에 함유시켜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각질제거 기능의 '우유필링 윤광 마스크팩', 미백 및 수분강화 기능의 '비타민 ACE 생기 마스크팩', 탄력 개선 기능의 '볼륨업 다-에이징 마스크팩', 피부진정 및 리프팅 기능의 'V-탄력러드 마스크팩', 미세 노폐물 제거 기능의 '다-특 딥 클렌징 마스크팩'의 5종으로 구성되었다.



### welcron, 코골이 개선용 베개 특허 취득

welcron이 지난해 7월 IoT를 접목한 스마트 섬유제품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코골이 개선용 베개'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는 코골이를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베개의 구성과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 베개에는 전도성 센서와 코골이 소리 인식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베개 제품에 전도성 센서를 적용한 첫 사례로, 스마트폰 터치패드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베개를 베는 순간 이를 인지하고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코골이 소리만을 검출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로, 코골이소리를 인식하면 스스로 에어백을 팽창시켜 사용자의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기도를 확보하고, 코골이가 잦아들면 베개 높낮이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코골이를 개선한다.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코골이 수술을 받거나, 수면 중 코골이 기구를 착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착용이 불편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welcron의 코골이 개선용 베개는 편안하게 베는 것만으로 코골이를 개선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면 시간관리가 가능하다. 또 수면패턴 분석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하면 사용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welcron 기술연구소 김봉태 상무는 "이 코골이 개선용 베개를 '의료 기기'가 아닌 '웰니스 제품'으로 인증하고, 향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재미를 더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welcron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안전 IoT 연계 제품과 스마트 섬유제품 개발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웰크론그룹 사보 <welcron+in>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welcron+in>을 읽고 난 후 독자퀴즈의 정답과 함께 인상 깊었던 칼럼에 대한 소감,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소정의 상품(웰크론그룹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웰크론그룹 사보 <welcron+in>은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 기다리겠습니다.



독자후기

화장품 사업부터 HRSG보일러, 건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웰크론그룹을 보니 기업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모델인 하지원 씨도 세사리빙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서 효과적으로 세사리빙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표정이 밝고 진심으로 즐기는 듯한 모습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동호회가 있었다면 동료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_강형근 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건강한 화장품을 만들고자 하는 화장품사 업무부의 약속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미세먼지와외의 전쟁을 해야 하는 날 들이 많아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이때 안티폴루션 제품이 출시됐다니 기대도 됩니다. 마스크팩은 천연소재를 원료로 개발한 것도 좋았지만 웰크론의 섬유기술 이 담긴 고기능성 시트를 적용했다고 하니 당장 사용해보고 싶어요. 건강한 화장품 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고, 제품이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동작구\_윤종선 님

'에지미인' 제품을 꾸준히 써왔는데, <welcron+in>을 읽기 전에는 웰크론헬스케어 라는 회사의 제품인 줄 몰랐습니다. 주부이다 보니 침구류에도 관심이 많아 '세 사'와 '세사리빙'도 알고 있었는데 이 또한 웰크론그룹의 브랜드라니 놀랍습니다. <welcron+in>을 접한 것을 계기로 웰크론그룹이 여러 사업 분야의 자회사들로 구 성된, 우리 생활에 중요한 기업이란 사실을 알게 돼 기쁩니다. 앞으로 웰크론그룹 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은평구\_박영옥 님

매년 어김없이 야간행군을 진행하고, 직원들도 씩씩하게 완주한다고 하니 놀랍습 니다. 웰크론그룹은 강인한 에너지가 가득한 곳 같고, 그만큼 회사에서도 시도하는 사업 모두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웰크론에서 만든 방탄방검복을 우리나라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다니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웰크론그룹을 많이 접하게 되 는 것 같아요.

충북 청주시\_김보예 님



독자퀴즈

Quiz, 2018년은 웰크론그룹이 창립한 지 몇 년 째 되는 해일까요?



· 이미지 컷입니다. 제품 및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인상 깊었던 칼럼에 대한 소감 등 <welcron+in>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정답 보내실 곳: plan@welcron.com
- 정답을 보내실 때 선물 배송을 위해 성함,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일하기 좋은 직장, 함께 만들어 가요

미국 포춘지에서는 1998년 이래 매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GWP(Great Work Place) 지수가 높은 회사는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에 서도 월등한 차이를 보여,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은 '조직 구성원이 상사를 믿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으며,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 기업 문화의 핵심은 수평적인 관계, 상호 존중, 강한 동료애 등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첫 걸음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듯이,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 또한 상호 존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직장 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웰크론인들에게 다음 세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 첫째,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칭과 존댓말 사용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상호 존대는 수평적 문화를 강화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 둘째,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무심코 내뱉은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적 대상화를 하는 행동은 동료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5초만 더 생각하면 남녀 모두가 즐겁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셋째, 모두가 '나와 동등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

'만약에 나였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놓아보는 것은 존중과 배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이를 위한 웰크론인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